

2015 동학농민혁명 기념전 및 역사기행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2015년 10월 17일 (토)

전주한옥마을
전주·완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주최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후원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역사(略史)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지금의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다시 고부 백산(지금의 부안군 백산)으로 진격하여 백산대회를 개최한다. 이곳 백산에서 군대로서의 대오를 편성한 농민군은 격문과 12개 조항의 군율, 4대 명의 등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내외에 천명한다. 이어, 정읍 황토재와 전남 장성 황룡촌에서 전라감영과 경군을 크게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전라감영이자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성을 함락·입성하게 된다.

전라도 수부이자 조선왕조를 연 이성계의 본향인 전주성이 함락되자 크게 놀란 봉건정부는 청나라에 지원군 파병을 요청하고, 이것을 빌미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요구의 명분을 위해 전주화약을 맺은 뒤 전주성에서 나온다. 전주성에서 나온 동학농민군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쾌거를 이룬다.

그러나 일본군은 철병하기는커녕 갑오년 6월 경복궁을 무단침입·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한다.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기점이 되는 청일전쟁을 도발한다. 봉건정부의 폭정에 더해 외세의 전쟁으로 조국산하가 남의 나라 군대의 전장터로 변하자 백성들의 삶은 한층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삼례에서 적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제2차 기병을 단행한다. 이 때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반일항전이 급속하게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확산되자 동학농민군은 서울을 향해 북상을 시작한다.

논산을 거쳐 이인·판지·곰터·효포를 지나 공주로 향하던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일본군이 중심이 된 반농민군 연합부대를 맞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지만 신무기로 무장한 훈련된 정규부대를 당해내지 못하고 패하고 만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근대적인 폐정개혁을 단행하여 자주·평등·대동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꿈이 외세의 물리력에 의해 끝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은 항일의병, 3·1 운동, 4·19 혁명, 광주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 나라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으로 점철된 근·현대사의 굴절을 바로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빛나는 정신을 민족통일국가 실현의 기틀로 되살려야만 할 것이다.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주, 평등, 대동세상의 실현을 위해 일어난 전국규모의 민중항쟁입니다. 121년 전, 자주와 개혁의 의지로 온 산하를 물들였던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민족자주와 민주정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가을에는 전주한옥마을과 도내 주요 유적지에서 기념전시회와 역사기행 등을 펼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 동학농민혁명 기념전 및 역사기행〉은 동학농민군 활동의 중심지였던 전주와 척왜양창의 기치아래 반외세 항전의 결의를 다지며 재봉기했던 삼례에서 열립니다. 자료사진 및 학생작품의 관람과 전주완주 지역의 의미있는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현장에서 느끼고, 그 역사적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올곧은 정신을 되새기는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전라북도 측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민족 희망의 좌표로 되살아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후세에 물려줄 자랑스런 역사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 10. 17.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에서 건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5월, 동학농민혁명 이래 격동과 수난의 전주지역 근현대사를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 '춤추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던 전주역사박물관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전주시로부터 수탁하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학술대회·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박물관내에 상설전시실을 두고 동

학농민혁명의 발발과 전개과정,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유물과 사료를 비중 있게 전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전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난 1996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토대로 복원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흉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전주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역사박물관은 2005년부터는 '전주문화사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보다는 전주의 역사를 전시하는 지역사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이며, 4층 상설전시실인 "동학농민혁명실"을 포함하여 전주역사실, 기증기탁실, 기획전시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산칠봉 전투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동학농민혁명 당시 4월 27일(음력)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이 5월 8일(음력) 전주성에서 철수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완산칠봉 안내판 가운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봉준 장군이 이 완산을 점령하고 관군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와 <동학전적지비>에서 완산전투와 관련된 사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록되어 있다.

완산칠봉 전투지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직후 이를 탈환하려는 홍계훈의 경군과 전주성을 지키려는 농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전주성을 둘러싼 관군과 농민군의 전투는 크게 세 차례 전개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전투에서 홍계훈의 관군은 완산칠봉에 진을 쳤고, 따라서 농민군은 화력의 열세와 함께 지형적인 불리함도 안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산칠봉에 진을 치고 대포공격을 감행한 관군들의 공세에 의해 당시 전주성은 상당히 파괴되었고, 심지어 경기전까지 훼손당했다고 전해진다. 완산칠봉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격전지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농민군이 이 완산전투에서 희생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농민군과 관군의 구체적인 전투양상은 밝혀지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농민군과 관군의 전투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완산칠봉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중요한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완산공원에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비는 1991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건립하였다. 이 기념비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시민적 공감대 없이 세워져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전문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기념사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기념비의 글은 전영래와 조병희가 지었으며 김윤길이 썼다. 동학농민군 전주성과 관련된 유일한 기념물인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완산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전주화약을 맺은 후 농민군 스스로 전주성에서 철수하기까지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주입성 기념비 앞에 <동학전적지 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돌비를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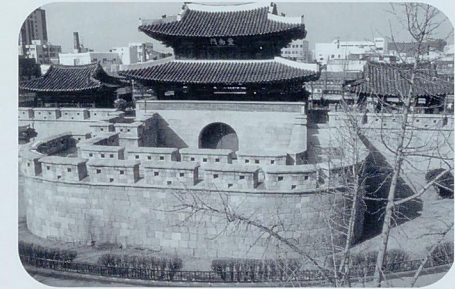


경기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태종 14년(1414)에 건립되었다. 1894년 4월 27일(음력)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하게 되자, 전라감사 김문현, 전주판관 민영송 등은 경기전 이태조 영정과 조경묘(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의 위판을 봉안한 묘) 위패를 받들고 전주 동북쪽에 있는 위봉산성의 행궁에 봉안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관군이 전주성

밖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관군이 농민군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포가 경기전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경기전 훼손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혁명적 의지와 봉건적 규례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풍남문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할 때 서문과 함께 진입했던 곳이다. 또한 성을 함락시킨 후 건너편 완산칠봉에 진을 치고 대포 등을 쏘며 공격하는 경군을 맞아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풍남문은 현재 보물 제308호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풍남문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곳을

통해 동학농민군들은 유혈충돌 없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1894년 당시 농민군이 이룬 최대 전승지로서의 전주가 갖는 의미와 입성이후 벌어지는 완산전투 등을 집적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동학농민혁명을 통하여 전주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유적지이다.



동학혁명기념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종교단체인 천도교의 건물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해 <천도교중앙총부 동학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94년 말에 착공하여 1995년 5월 31일 준공하였다. 천도교에서 동학농민혁명 및 동학관련 유물과 자료 등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천도교 전북교구청이기도 하다.



전주덕진공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은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덕진공원 안에 전봉준장군의 동상, 김개남장군 추모비, 손화중장군 추모비가 한 구역에 세워져 있다.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를 거쳐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곳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현재 세워져 있는 동상과 추모비는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큰 의의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당시 농민대다수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덕진공원 조형물들을 보면 지도자 몇몇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덕진공원 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들을 개선,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삼례봉기 기념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청·일전쟁의 승리를 이용하여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1894년 9월(음력) 동학농민군은 이곳 삼례에서 '척왜양창의' 기치 아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단행했다. 우리나라 한일외병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번져나간 기점이 되었던 삼례봉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세기를 지나는 동안 그 기념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1996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를 건립하여 향후 이 지역 기념사업의 단초를 열어놓는다. 2차 삼례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이 기념비는 삼례읍구(찰방다리 부근)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1892년 11월(음력) 동학교도들의 삼례집회와 1894년 9월(음력) 동학농민혁명 제 2차 삼례봉기를 기념하여 각종 조형물과 상징물 등으로 조성해 놓은 역사테마 공원이다.

1996년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어 2002년 12월 완성되었다. 완주군이 전라북도과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완주군 문화체육시설지구내에 조성한 이 역사광장은 돔 형태로 농민군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인 '추념의 장', 농기구를 형상화한 '대동의 장', 판화형식을 빌려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하는 '선양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한 조형물과 조경 등으로 삼례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구 표지석 뒤쪽에는 역사광장 조성 후, 2004년 추가로 설치한 '동학농민군 출신상'이 자리잡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일지

1892. 10. 동학교도의 공주신원운동.
11. 1. 동학교도의 삼례신원운동.
1893. 2. 9. 동학교도의 광화문 복합상소.
2. 14. 동학교도의 서울 패서사건.
3. 10. 동학교도의 보은집회.
3. 4. 금구원평 집회.
4. 2. 보은집회 해산.
11. 15. 고부군민 조병갑에게 수세감면 요구.
11. 30. 조병갑 익산군수로 전임 발령.
1894. 1. 9. 조병갑 고부군수로 재부임.
1. 10. 고부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1. 25. 고부민군 백산으로 이동함.
2. 15. 조병갑 정치, 김문현을 감봉, 박원명 고부군수 임명.
2. 16. 이용태 안핵사로 임명.
3. 3. 박원명의 설득과 회유로 고부군민 기본세력 해산.
3. 안핵사 이용태 고부민군 강경탄압.
3. 13. 고부민군 완전 해산, 전봉준 무장 순화중포로 피신.
3. 20. 동학농민군 무장에서 전연기포.
3. 23. 고부군 재점령.
3. 25. 백산에 집결하여 '호남창의대장소' 설치.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순화중·김개남 추대.
백산창의문과 농민군 4대 행동강령, 군율 등 선포.
4. 3. 전라감영군 백산으로 출동.
4. 6. 부안과 태인으로 후퇴.
4. 7. 황토현에서 감영군 격파. 정읍관아 점령.
4. 8. 흥덕, 고창점령.
4. 12. 농민군 영광 점령.
4. 15. 경군 원평 진출.
4. 16. 농민군 합평 점령.
4. 21. 경군 영광 도חק.
4. 23.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 격파.
4. 25. 정읍, 태인, 원평진출.
4. 26. 원평에서 선전관 이주호, 군관 이효응, 배은환 등 참수.
4. 27. 전주성 입성.
4. 28. 경군 완산 포진. 동학농민군과 경군 접전.
5. 4.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 아산만 상륙.
5. 6. 일본 군대 인천항 상륙.
5. 7. 전주화약 체결. 전라도 일대 집강소 설치.
6. 21. 일본군 경북공 침입. 민씨정권 몰락.
6. 25. 친일 개화정권 수립, 군국기무처 설치.
7. 1. 청일전쟁 선전포고.
7. 2. 전봉준·남원 순회. 일본군 경북공 침입소식 접함.
7. 15. 전봉준, 김개남 남원대회 개최.
8. 17.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승리. 일본의 조선 내정 적극 간섭.
9. 초. 전봉준 원평에서 2차 기포 숙고, 삼례 진출.
9. 12. 삼례에서 2차 기포 결정. 삼례 집결 통문.
9. 25. 경상도 안동에서 농민군 3천명 봉기.
9. 말. 최시형 휘하 복집 거담.
10. 6. 황해도 해주에서도 봉기.
10. 16. 남접과 북접 합류. 김개남부대 전주 도חק.
10. 21.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선발대 패퇴.
10. 24-25. 호포, 대교 고평전투.
11. 9. 우금재 전투. 동학농민군 패배.
11. 25. 원평 구미란 전투. 태인으로 후퇴.
11. 27. 태인 전투.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해산.
12. 1. 순화중 부대 해산. 김개남 태인에서 체포.
12. 2. 전봉준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
12. 3. 최경선 체포.
12. 5.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장흥 점령.
12. 7. 전봉준 일본군에 의해 나무목으로 압송.
12. 10.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강진 점령.
12. 11. 고창에서 순화중 체포.
12. 13. 김개남 전주 (장대)에서 효수.
12. 24. 최시형의 북접군 충주에서 해산.
1895. 1. 1. 원평에서 김덕명 체포.
3. 29. 전봉준, 순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등 교수형.

* 위 일지는 모두 음력입니다.

2015 동학농민혁명 기념전 및 역사기행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2015. 10. 17.(토)

2015 동학농민혁명 기념전

일시 / 10. 17.(토) 10:00 ~ 18:00

장소 / 전주한옥마을(*동학혁명기념관 마당)

내용 / **자료사진전** -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담은 설명글과 사진자료 전시
학생작품전 - 동학농민혁명 초중고학생 사생대회 입상작품 전시

2015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일시 / 10. 17.(토) 09:00 ~ 17:00

장소 / 전주·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내용 / 09:00 차량출발

09:30 국립전주박물관(*차량집결)

10:00 전주역사박물관

11:00 완산칠봉,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12:00 전주한옥마을(*점심식사)

13:00 경기전, 풍남문, 동학혁명기념관(*기념전 관람)

14:00 전주덕진공원

15:00 삼례봉기 기념비(*완주)

16:00 삼례봉기 역사광장(*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전

자료사진전

동학농민혁명

백년에 흐른 징검다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www.donghak.ne.kr

전화 063)232-1894 / 팩스 063)232-1895

550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필달로 163(경원동1가 106) 기업은행 4층



본 자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